

초등 교과서에 나타난 고유어와 한자어 비율에 따른 인식과 의미 분석

최운선*

〈차례〉

- I. 머리말
- II. 고유어와 한자어 비율에 대한 인식과 연구사 검토
- III. 초등교과서(2009) 한자어와 고유어 비율과 그 의미
- IV. 맷음말

I. 머리말

언어는 근본적으로 혼종어(Hybrid word, 混種語)이다.¹⁾ 그 어떤 언어도 어원으로 보았을 때 순수한 언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혼종의 의미와 혼종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언어마다 다르다. 영어는 혼종에 대해 관대한 언어이고 프랑스어나 한국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한국은 한글이라 는 단일 문자 체계로 그런 갈등이 줄었으나 여전히 ‘순우리말이냐 한자어냐’는 구별과 논의는 되고 있고 교육 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필요하다.

* 장안대

1) Ralph Fasold(1990 : 180)에서는 세계의 모든 언어는 서로 다른 언어가 섞여 있는, 언어 학자들이 피진어와 크레올어로 부르는 언어들이다. (Among the thousands of languages in the world, there are two related kinds of language that linguistics have usually treated as special called pidgin and creoles.). 이렇게 ‘혼종어’로 보는 관점은 모든 언어는 반드시 외래어가 섞여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어는 어원을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유어(순우리말, 토박이말)와 한자어로 나눈다.²⁾ 이러한 고유어와 한자어는 한국어를 구성하는 풍부한 주요 어휘 요소이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 (1) 가. 낱말 : 단어
- 나. 낱말 : 단어(單語)
- 다. 낱말 : 單語
- (2) 가. [네가 아는 낱말을 말해봐]
- 나. [네가 아는 단어를 말해봐]

(2)와 같은 입말에서는 고유어냐 한자어냐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어원 지식이 없거나 어원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냥 같은 한국어의 유의 어일 뿐이다. 또한 유의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의미 이해나 인지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러나 (1)과 같이 문어 맥락에서는 표기 방식에 따라 맥락의 차이가 있고 소통이나 이해 맥락도 달라질 것이다. (1) 가)와 같은 표기를 한글전용주의라 하고 (1)나)와 같은 표기를 국한문혼용체라 하고 (1)나)는 한글 중심의 절충 방식이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1)과 같은 표기 방식을 따르지만 교육 차원에서는 한자어의 한자 어원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³⁾ 아직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각각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이나 문맥적 효과, 인지의 차이 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설령 (1)처럼 표기한다 하더라도 실제 교육 전략을 위해서는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똑같은 어휘가 아니면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한자어냐 아니냐,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교육 정보이다. 따라서 초등 교과

2) ‘순우리말’은 ‘순-’이란 접두사 때문에 지나치게 베타적인 용어로 들리고, 토박이말은 토박이 화자의 폭을 규정하기 어려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유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3)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온 어휘 중 동시(同視)와 동시(童詩)의 어원적 차이 또는 사탕(沙(모래사)糖, 砂(모래사)糖, 紗(사탕사)糖)한자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 이희승 국어 대사전은 砂로 표기.

서 어휘들이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어원 측면의 다양한 쓰임새와 그에 따른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의 분석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김한샘 편(2009)에 따른다. 이 자료는 [표 1]과 같은 초등 전 교과서를 대상으로 추출한 것으로 13개 과목의 18종 교과서 총 127권을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같은 형태의 표제어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⁴⁾ 이를 바탕으로 어원에 따른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의미를 규명하기로 한다.⁵⁾

[표 1] 교과서(2009)의 학년/과목별 교과서 목록

학년	과목	교과서
1	국어	밀하기 · 듣기 1-1, 1-2
		쓰기 1-1, 1-2
		읽기 1-1, 1-2
	도덕	생활의 길잡이 1-1, 1-2
	바른 생활	바른 생활 1-1, 1-2
	수학	수학 1-가, 1-나
		수학 익힘책 1-가, 1-나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1-1, 1-2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1-1, 1-2
2	국어	밀하기 · 듣기 2-1, 2-2
		쓰기 2-1, 2-2
		읽기 2-1, 2-2
	도덕	생활의 길잡이 2-1, 2-2
	바른 생활	바른 생활 2-1, 2-2
	수학	수학 2-가, 2-나
		수학 익힘책 2-가, 2-나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2-1, 2-2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2-1, 2-2

4) 지역 교과서로 발간되는 ‘우리들은 1학년’과 ‘사회과 탐구 4-1’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특정 분야의 한자어, 고유어 비율 조사 연구로는 “문금현(2000).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교육 11(2), 2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드라마 대본에 쓰인 4,619개의 어휘를 품사별로 분석하여 고유어는 명사류에서 23%로 적지만, 동사류에서는 59%로 더 많음을 밝혔다.

학년	과목	교과서
3	국어	밀하기 · 듣기 3-1, 3-2
		읽기 3-1, 3-2
		쓰기 3-1, 3-2
	도덕	도덕 3-1, 3-2
		생활의 길잡이 3-1, 3-2
	미술	미술 3
	사회	사회 3-1, 3-2
	수학	수학 3-가, 3-나
		수학 익힘책 3-가, 3-나
	과학	과학 3-1, 3-2
		실험 관찰 3-1, 3-2
4	음악	음악 3
	체육	체육 3
	국어	밀하기 · 듣기 · 쓰기 4-1, 4-2
		읽기 4-1, 4-2
	도덕	도덕 4-1, 4-2
		생활의 길잡이 4-1, 4-2
	미술	미술 4
	사회	사회 4-1, 4-2
		사회과 탐구 4-2
	수학	수학 4-가, 4-나
		수학 익힘책 4-가, 4-나
5	과학	과학 4-1, 4-2
		실험 관찰 4-1, 4-2
	음악	음악 4
	체육	체육 4
	국어	밀하기 · 듣기 · 쓰기 5-1, 5-2
		읽기 5-1, 5-2
	도덕	도덕 5
		생활의 길잡이 5
	미술	미술 5

학년	과목	교과서
5	사회	사회 5-1, 5-2
		사회과 탐구 5-1, 5-2
	수학	수학 5-가, 5-나
		수학 익힘책 5-가, 5-나
	과학	과학 5-1, 5-2
		실험 관찰 5-1, 5-2
	실과	실과 5
	영어	영어 5
	음악	음악 5
	체육	체육 5
6	국어	읽기 6-1, 6-2
	도덕	도덕 6
		생활의 길잡이 6
	미술	미술 6
	사회	사회 6-1, 6-2
		사회과 탐구 6-1, 6-2
	수학	수학 6-가, 6-나
		수학 익힘책 6-가, 6-나
	과학	과학 6-1, 6-2
		실험 관찰 6-1, 6-2
	실과	실과 6
	영어	영어 6
	음악	음악 6
	체육	체육 6

위 교과서에서 추출한 학년별 어휘수는 [표 2]와 같다. 중복 어휘를 인정안 할 경우는 23,276개이고 중복 어휘를 포함할 경우는 52,196개이다 학년별 통계의 의미는 본론 안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표 2] 어원별 학년별 어휘수(학년별 중복 어휘 없음)1)

분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복 없는 어휘 수	23,276	3,198	1,926	3,803	3,771	5,409	5,169
중복을 포함한 어휘수	52,196	3,198	4,081	7,334	9,255	13,166	15,162

* 위의 표로 보아 교과서 편수가 늘어나는 3학년의 경우 어휘수가 증가하고 교과학습의 내용이 많아지는 5학년에서 어휘수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주 : 1) 학년별로 중복어휘를 인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교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9.

※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원별 학년별 어휘수 분석

II. 고유어와 한자어 비율에 대한 인식과 연구사 검토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한 뿌리깊은 인식은 대부분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70%라는 선행 조건에서 출발한다. 최근 신문 보도 자료나 칼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70%가 한자어인데 뜻도 모르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⁶⁾

한자는 우리말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쓰지 않는 우리말이다.⁷⁾

국어의 70%가 한자인 만큼,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⁸⁾

6) 김창혁(2012). 한자교육 천만인 서명운동 진태하 인제대 석좌교수. <동아일보> 2012.3. 26. 29면.

7) 허진석(2012). “국민 89%—여야 모두 찬성… 초등교 한자교육 실시하라”. <동아일보> 2012.03.16. 31면.

8) 최재영(2012).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진태하 이사장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교육 해야” <SBS뉴스> 2012.03.15.

한자를 배워야 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글의 70% 이상이 한자어(漢字語)라는 사실이다.⁹⁾

우리말의 70%가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된 한자는 국어나 다름없다는 점을 알면 어느 계층이든 한자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¹⁰⁾

이들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고, 그중 동음이의어가 90% 이상이어서 한자로 쓰지 않으면 의미 구별이 안 되며, 한자는 국자(우리나라 글자)이므로 의무교육과정에서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 등이다.¹¹⁾

“한국어의 70%가 한자어라서 한자를 알면 낯선 어휘도 금방 단어 뜻을 추측할 수 있다”며 “특히 문학과 어학 등 전문적인 어휘에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를 익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¹²⁾

이명학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 “대학생들이 ‘현재’를 ‘현재’로, ‘계재’를 ‘계제’로 쓰고, 초등학생이 ‘재산’을 ‘제산’으로 쓰기도 한다”면서 “한자어가 우리말의 70%가량을 차지하는데도 한자를 제대로 익히지 않다 보니 우리말이 엉망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¹³⁾

침략자들은 사전의 올림말 수로 한자어를 70%나 되게, 순우리말은 고작 30%에 지나지 않게 만들었다.¹⁴⁾

우리말의 70%가 한자로 된 단어이고 과학용어의 90%가 한자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¹⁵⁾

9) 신도성(2011). 한자교육이 정말 필요한 이유. <중도일보> 2011.10.31 20면.

10) 국민일보사(2011). 자녀 이름 漢字로 못쓰는 부모들. <국민일보> 2011.10.26. 27면.

11) 구범희(2011). 국어기본법 혼들지 말자. <서울신문> 2011.08.12. 30면.

12) 신진호(2011). [한자를 다시 본다]③한글과 한자 수래의 두 바퀴/사기=그릇? 역사책? 기운?... 한글만으론 의미 ‘일송달봉’? <세계일보> 2011.07.04. 05면.

13) 박희준(2011). [한자를 다시 본다]①한자 외면 속 멍드는 우리말 “상쇄를 상세” “현재를 현재” 한자 모르니 맞춤법 엉망. <세계일보> 2011.07.01. 05면.

14) 박용규(2011). 한자교육기본법의 제정을 반대한다. <한겨레> 2011.06.11. 25면.

15) 장세균(2011). [오목대] 한자교육. <전북일보> 2011.05.19. 13면.

그런데 우리말의 70%이상이 표의문자인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¹⁶⁾

우리말의 70%가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국어 공부가 한결 쉬워진다.¹⁷⁾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로 이뤄져 있어 아이들에게 한자에 대해 어떤 형태든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일부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¹⁸⁾

한자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견고한 통념을 보여 주기 위해 길게 인용해 보았다. 70%라는 매우 구체적인 수치는 공교롭게도 상징적 수치로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통용되는 의미는 대부분 한자어의 중요성이나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전거로 인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말에서 한자어의 비중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나 수치의 정확성에 관계없이 한자어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인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 차원에서 이런 수치의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¹⁹⁾

수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인식의 뿌리는 한자와 한자어 교육에 선구 업적을 남긴 이응백(1980)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²⁰⁾

漢字語는 이미 外來語가 아닌, 우리말에 完全히 同化된 말로, 바람직한 일

-
- 16) 문태길(2011). [제민포럼] 초등학생의 표현능력은 한자학습에 달려있다. <제민일보> 2011.05.16.
 - 17) 홍찬식(2009). [횡설수설] 漢字교육. <동아일보> 2009.01.12. 30면.
 - 18) 진명선(2008). 떨어진 국어실력 한자공부 하면 향상된다? <한겨레> 2008.9.28. 3면.
 - 19) 국어교육에서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슬옹(2010) 참조. 통계의 전거가 되는 자료는 어디까지나 종합 대사전이다. 이러한 대사전은 일상어에서의 빈도수가 배제된 것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하늘, 學校학교)나 안 쓰이거나 거의 안 쓰이는 단어(보늬, 미모 美毛)가 1 : 1로 수록되어 있다.
 - 20) 박용규(2011가), 박용규(2011나) 등에서는 사전에서의 한자어 70% 비율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어사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전에서의 비율은 맞지만 우리사회의 70% 한자어 인식은 이응백(1980)의 논문이 널리 읽히면서이므로 박용규의 지적은 옳지 않다.

은 못되나 歷史的으로 우리 文化와 傳統 形成의 脊椎구실을 해 왔다. 이제 우리 文化를 傳承 發展시키기 위하여는 삶건 좋건 이들 漢字語를 度外視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宿命이다. 外國의 文化를 그들의 言語를 學習 해 가면서 消化 吸收하여 自國文化를 살찌우는 現時點에서, 이미 生活化되어 극히 自然스럽게 쓰이고 있으며, 국어 사전 收錄語彙의 70%나 되는 그 漢字語를 忌避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응백(1980 : 139-140)

이응백(1980)에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표 3], [표 4]와 같이 한글학회의 『큰사전(1957, 을유문화사)』과 이희승의 『국어 대사전(1961, 민중서관)』의 어휘 조사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두 사전은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전이었다. 큰 사전은 일제강점기 때의 이국로²¹⁾가 주축이 되어 만든 사전으로 해방 후 한글학회를 대표하는 사전이고 국어대사전은 한글학회의 한글전용 정신을 반대하는 한자 혼용파의 거두인 이희승이 기획하여 만든 사전으로 한자 혼용 정신에 따라 한자어를 크게 부각시킨 사전이다.²²⁾

21) 이국로(1893-1978) 국어학자, 정치인. 경상남도 의령 출신. 1920년 중국 상해 동체대학(同濟大學) 예과를 마치고 1927년 독일 베를린대학 철학부 졸업. 1929년 『조선어사전』(뒷날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편찬 집행위원, 1930년 한글맞춤법 제정위원, 1935년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 1936년 조선어사전 편찬 전임위원 및 조선어학회 간사장, 1942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검거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함흥형무소에서 복역. 1946년 건민회(建民會) 위원장, 1948년 4월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설회의' 참석차 평양에 갔다가 간류하여 북한에서 활동, 1948년 9월 북한 제 1차내각의 무임소장, 1949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1962년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 연구소장, 1966년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1966년 이후 본격화한 북한의 언어규범화운동인 '문화어운동 사업'을 주관하였다. <논문> 『조선어조 연구』, 『조선어 임자씨의 토』(1935), 『조선어 단어성립의 분계선』(1936), 『짓말에 대하여』(1937), 『실험도해 조선어 음성학』(1947) 등이 있다.

22) 이희승도 조선어학회를 이끈 핵심 인물이었으나 해방 후에는 철저하게 조선어학회의 한글 중심 노선을 철저하게 거부했다. 이희승은 해방 직후에 펴낸 <한글맞춤법강의(동성사)>에서 "한자가 들어온 후에 조선 사람이 그 한자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본 일도 있으나 그런 것은 소수에 지나지 못하고, 한자어라 하면 대체로 한어 즉 지나말이다. 한자어는 조선어 전체에 대하여는 한 부분에 지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전체를 망그리든다.(1쪽)"라고 하여 조선어학회의 정신을 지지하고 있다.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꾼 것은 1948년이다. 이희승이 한자 중심 노선을 본격적으로 걸은 것은 <국어대사전(1961)> 편찬 시기로 보인다.

이 조사 논문은 방대한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어원별로 분류한 최초의 논문이나 자세한 통계 처리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짧막한 논문이다.

[표 3] 두 사전 收錄 語彙數의 類別 比較表(이응백 1980 : 138)

類別		固有語	漢字語	外來語	계
語數	①우리말 큰사전	74,612 (45.46%)	85,527 (52.11%)	3,986 (2.42%)	164,125
	②국어 대사전	58,323.5 ²³⁾ (25.89%)	150,935.5 (67.02%)	15,944 (73.07%)	225,203
比較	②가 ①보다	-16,288.5	+65,408.5	+11,958	+61,078

[표 4] 「국어 대사전」語彙 類別 構成比(이응백 1980 : 139)

類別	固有語	漢字語	外來語	계
標題語 數	58,323.5	150,935.5	15,944	225,203
‘-高地’系 派生語數	4,589	27,810	252	32,651
계	62,912.5	178,745.5	16,196	257,854
百分率	24.4%	69.32%	6.28%	100%

이응백(1980 : 139)에서 “이렇게 보면 漢字語는 사전 수록 語彙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것은 固有語의 2.8倍 곧 거의 3倍가 된다. 따라서 漢字語가 우리말 語彙의 52%가 된다고 한 「우리말 큰사전」의 통계는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 未收錄된 방대한 學術用語는 그 대부분이 漢字語로 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수록되면 漱字語의 比率은 더 높아질지언정 낮아질 展望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매우 중요한 통계 처리임에도 매우 소략하게 소개하고 있어 자세한 정보 추출 과정을 알기 어렵다.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서양, 일본)”²⁴⁾ 등의 혼종 어원구성 어휘는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 범주에 포

23) 원문을 아무리 읽어도 소수점 이하 수치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필자(이응백)는 이미 고인이 된 터라 확인할 길이 없다.

함시킨 것인지 논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희승편 『국어대사전』이 우리말 어휘 가운데 70%가 한자라는 인식의 기원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어원을 좀더 세밀하게 분류한 것은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한 정호성(2000)에 의해 이루어졌다[표 5]. 이것은 전산 처리에 의한 최초의 통계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다.

[표 5] 주표제어의 원어별 분류(정호성, 2000) 재구성

갈래	형목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한+고	와+고	한+외	한+와+고
전 체 (백분율)	440,262 (100%)	111,299 (25.28%)	251,478 (57.12%)	23,196 (5.26%)	36,461 (8.28%)	1,331 (0.30%)	15,548 (3.53%)	751 (0.17%)
명 사	333,226	69,888	205,229	19,443	31,221	845	6,142	312
동 사	15,135	14,701	0	0	433	1	0	0
부 사	14,076	13,268	528	0	280	0	0	0
형용사	6,438	5,145	0	0	1,266	27	0	0
의 존 명 사	1,049	411	207	350	9	6	65	1
감탄사	811	738	30	11	32	0	0	0
대명사	462	219	236	0	7	0	0	0
관형사	525	332	191	0	2	0	00	0
수 사	275	186	89	0	0	0	0	0
조 사	356	356	0	0	0	0	0	0
어 미	2,523	2,523	0	0	0	0	0	0
접두사	204	114	90	0	0	0	0	0
접미사	450	230	220	0	0	0	0	0
어 근	7,353	3,003	4324	0	0	0	0	0
무품사	58,884	1,181	40,782	3,426	3,271	452	9,342	439
품 사 통 용	1,526	957	490	34	43	0	2	0

정호성(2000)에서는 수록 표제어에 대해 일곱 가지 유형(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고유어)으

24) 한자어도 외래어이지만 분류의 편의상 이 때의 외래어는 한자어를 제외한 외래어를 말 한다.

로 분류하였다. 어원별로 보면 한자어는 57.12%, 고유어는 25.28%로 기존 비율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품사별로 보면, 고유어는 각 품사별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반해 한자어는 명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상의 비율을 종합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우리말 큰사전, 국어 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의 어원별 비율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종합계
우리말 큰사전 (1957)	74,612 (45.5%)	85,527 (52.1%)	3,986 (2.4%)					164,125 (100%)
국어 대사전 (1961)	62,912.5 (24.4%)	178,745.5 (69.3%)	16,196 (6.3%)					257,854 (100%)
표준 국어 대사전 (2000)	111,299 (25.3%)	251,478 (57.1%)	23,196 (5.3%)	36,461 (8.3%)	1,331 (0.3%)	15,548 (3.5%)	751 (0.2%)	440,262 (100%)

이렇게 보면 기존의 국어 사전을 모두 종합하여 만든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한자어 비율은 해당 어휘 영역만 본다면 국어대사전에서의 비율보다 12.2%가 떨어졌으며 큰사전보다는 5% 늘었다. 고유어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이 국어대사전보다 0.9% 늘었고, 큰사전보다는 20.2%가 떨어졌다.

또한 큰사전, 국어대사전의 비율은 혼종어 비율이 표준국어대사전처럼 체계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그런 비율을 마치 변치않는 수치처럼 계속 인용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교재를 대상으로 한 어원별 어휘조사로는 홍윤기·서희정(2010)²⁵⁾ 있다. 여기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서 고유어,

25) 이영희(2007)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한자 빈도와 교육적 의미를 밝혀 놓았다. 김지형(2003)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기본한자의 선정을 초·중급 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자어, 외래어 비율을 추출하였다. 경희대 교재는 한자어가 모두 56.16%, 성균관대 교재는 49.22%, 연세대 교재는 59.55%로 나타났다[표 7]. 급수가 올라갈수록 한자어 비율이 늘었지만 이응백(1980)에서의 사전 통계처럼 70%에는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초급 교재에서는 고유어 비율이 매우 높고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들어 고유어 중심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표 7] 한국어 교재에 실린 용언의 어종별 분포(홍윤기 · 서희정, 2010)

한국어 교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합계(%)
경희대	초급	243(71.26)	97(28.45)	1(0.29)	341(100)
	중급	351(44.21)	440(55.41)	3(0.38)	794(100)
	고급	244(30.61)	548(68.76)	5(0.63)	797(100)
	어종별 합계	838(43.37)	1,085(56.16)	9(0.47)	1,932(100)
성균관대	초급	147(65.05)	74(32.74)	5(2.21)	226(100)
	중급	331(57.77)	238(41.53)	4(0.70)	573(100)
	고급	165(34.02)	320(65.98)	0(0.00)	485(100)
	어종별 합계	643(50.08)	632(49.22)	9(0.70)	1,284(100)
연세대	초급	312(57.88)	217(40.26)	10(1.86)	539(100)
	중급	155(35.47)	281(64.30)	1(0.23)	437(100)
	고급	134(24.95)	403(75.05)	0(0.00)	537(100)
	어종별 합계	601(39.72)	901(59.55)	11(0.73)	1,513(100)

이상의 각종 통계를 보면 고유어와 한자어 비율이 어떤 것이 더 높건 간에 두 계열의 어휘가 우리말 구성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자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논자들 중에는 이응백(1980)을 비롯한 앞의 대부분의 인용 논자들처럼 한자 표기를 전제로 한다. 이는 한자 교육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논의다. 왜냐하면 김슬옹(2004)에서의 지적처럼 우리말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한자어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자어가 우리말이라면 당연히 아래 이희승의 지적처럼 우리 고유 글자인 한글로 표기되어 자연스럽게 소통되어야 한다.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우리 조상이 창작한 우리 글자이요, 한자는 본래 외국 글자로서 우리가 차용하고 있는데 지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외국 글짜의 음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우리글의 불통일을 초래하게 된다.²⁶⁾

III. 초등교과서(2009) 한자어와 고유어 비율과 그 의미

고유어와 한자어는 한국어를 구성하는 핵심 어휘들이다. 한자어는 서양 외래어와는 다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자어가 마치 이질적인 한국어인양 취급하고 있지만 그런 배타적 태도보다는 한자어가 우리말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 교육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휘 정보 분석을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김한샘 2009)> 모든 학년을 중심으로 어휘수와 분류별 비율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초등 교과서(2009)의 총 어휘수는 중복 어휘를 인정 안 할 경우 23,276개로 학년별 어휘수는 [표 8]과 같다.

모든 어휘를 대상으로 어원별, 품사별, 학년별로 분류하여 집계하였다. 어원으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되, 어원이 다른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을 따로 분류하였다. ‘간단하다’와 같은 ‘한자어+고유어’와 ‘가오리연’과 같은 ‘고유어+한자어’를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다.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된 단어인 경우도 앞뒤 결합 차이는 두지 않는다.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1학년 어휘 가운데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고유어 : 가게, 가까스로, 가까이, 가깝다, 가꾸다, 가끔
- 한자어 : 가사09, 가수11, 가정06, 가족01, 가족사진, 가족회의
- 외래어 : 게임, 껌, 노크, 라면01,
- 한+고(고+한) : 가오리연, 간단하다02, 간단히, 간장01, 감사드리다

26) 이희승(1948). 한글맞춤법 강의. 동성사. 113쪽.

- －한+외(외+한) : 유리컵
- －고+외(외+고) : 머리핀, 종이컵, 종이테이프

1~6학년의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는 고유어로 총 23,276 개 중 9,243개로 39.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간 국어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로 알려진 한자어는 9,189개로 39.5%의 비중을 지닌다. 외래어는 772개의 어휘로 3.3%를 차지하여 가장 적은 분포를 띠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어휘 유형으로 이루어진 혼종어의 경우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이 3,912개, 16.8%의 비율로 고유어와 한자어의 뒤를 잇고 있다. 한자어와 외래어로 이루어진 혼종어가 총 113개, 0.5%로 고유어와 외래어의 혼종어 47개, 0.2%의 비중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한자어+고유어’의 경우는 ‘공부하다’와 같은 어휘들로 핵심 어근이 한자어이므로 한자어와 같은 계열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하다’라는 고유어 활용 어휘와 쓰이므로 빈도수 차원에서는 고유어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이질적인 한자어와 고유어가 만나 풍부한 어휘를 만들 어낸다는 점이다.

외래어로 구성된 혼종어를 제외한 모든 어휘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개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특징적인 학년은 3, 5학년으로 이전 학년 대비 각각 3,343개, 3,911개의 어휘가 증가한다. 5학년의 경우 이전 학년에 비해 가장 많은 어휘수가 증가한 학년(팔호 안은 전(前)학년에 대비하여 증가한 숫자)으로 한자어(1,722개), 고유어(1,133개), 고유어+한자어(812개), 외래어(203개), 한자어+외래어(29개), 고유어+외래어(12개) 순으로 증가하였다. 비교적 모든 어휘가 3학년, 5학년에서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어휘수를 가진 고유어의 경우 학년별로 꾸준히 증가하며 이전 학년에 비해 3학년에서 1,328개, 5학년은 1,133개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다. 반면 6학년은 73개만이 증가하여 다소 그 폭이 좁다. 특이할만한 점은 한자어와 고유어+한자어는 6학년에서도 이전 학년 대비 1,420개와 480개로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표 8], [표 9]의 구성 비율에서 참고할 만한 점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비이다. 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교과서는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외래어>한자어+외래어≥고유어+외래어’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1학년에서 교과서의 68.26%를 차지했던 고유어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성 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한다. 반대로 한자어의 경우 구성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6학년의 경우 고유어보다 5.2% 높은 42.13%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표 8] 어원별 학년별 어휘수(학년별 중복 어휘 없음)²⁾

분류	학년 전체	1학년어휘 전체	2학년만 의어휘	3학년만 의어휘	4학년만 의어휘	5학년만 의어휘	6학년만 의어휘
고유어	9,243	2,183	1,123	1,595	1,399	1,695	1,248
한자어	9,189	649	474	1,410	1,621	2,387	2,648
한+고	3,912	317	275	647	620	1,023	1,030
외래어	772	45	50	122	107	252	196
한+외	113	3	3	23	18	33	35
고+외	47	1	1	6	6	19	12
총합계	23,276	3,198	1,926	3,803	3,771	5,409	5,169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9.

※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원별 학년별 어휘수 분석

[표 9] 어원별 학년별 어휘수(학년별 중복 어휘 없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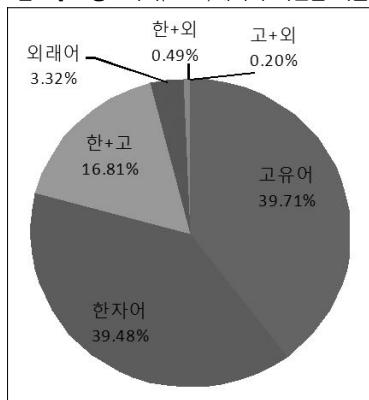
분류	1~6학년 전체	1학년어휘 전체	2학년만의 어휘	3학년만의 어휘	4학년만의 어휘	5학년만의 어휘	6학년만의 어휘
고유어	39.71%	68.26%	58.31%	41.94%	37.10%	31.34%	24.14%
한자어	39.48%	20.29%	24.61%	37.08%	42.99%	44.13%	51.23%
한+고	16.81%	9.91%	14.28%	17.01%	16.44%	18.91%	19.93%
외래어	3.32%	1.41%	2.60%	3.21%	2.84%	4.66%	3.79%
한+외	0.49%	0.09%	0.16%	0.60%	0.48%	0.61%	0.68%
고+외	0.20%	0.03%	0.05%	0.16%	0.16%	0.35%	0.23%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2, 3) 학년별로 중복어휘 없이 각 분류별 어휘수 집계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9.

※ [표 8]의 어휘수를 백분율로 표시

[그림 11] 초등교과서(2009)에서의 어원별 비율도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9.

※ [표 9]를 원형 그래프로 표시

중복 빈도를 인정할 경우는 [표 10], [표 11]과 같은 양상을 띤다. [표 12]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에 걸친 분류별 어휘 사용 빈도수이고 [표 13]은 분류별 어휘 사용 빈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중복 빈도 수이기 때문에 6학년의 어휘빈도수는 다른 학년에서 사용된 어휘빈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중복 어휘를 인정하지 않을 때와 같이 ‘고유어>한자어>외래어>한+고>고+외’ 순의 비율을 보인다.

[표 10] 초등 교과서(2009) 어휘수(중복 어휘 인정)⁴⁾

분류	1~6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고유어	24,145	2,183	2,600	3,838	4,395	5,528	5,601
한자어	15,509	649	930	2,248	3,246	4,968	6,388
한+고	7,981	317	477	1,036	1,349	2,161	2,641
외래어	1,403	45	69	180	227	430	452
한+외	166	1	3	24	26	55	57
고+외	72	3	2	8	12	24	23
총합계	52,196	3,198	4,081	7,334	9,255	13,166	15,162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9.

※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년별 어휘수 분석

[표 11] 초등 교과서(2009) 어휘수(중복 어휘 인정)⁵⁾

분류	1~6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고유어	46.26%	68.26%	63.71%	52.33%	47.49%	41.99%	36.94%
한자어	29.71%	20.29%	22.79%	30.65%	35.07%	37.73%	42.13%
한+고	15.29%	9.91%	11.69%	14.13%	14.58%	16.41%	17.42%
외래어	2.69%	1.41%	1.69%	2.45%	2.45%	3.27%	2.98%
한+외	0.32%	0.03%	0.07%	0.33%	0.28%	0.42%	0.38%
고+외	0.14%	0.09%	0.05%	0.11%	0.13%	0.18%	0.15%
백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4), 5) 학년별 중복 어휘를 인정하여 각 분류별 어휘수 집계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9.

※ [표 10]의 어휘수를 백분율로 표시

전체 어휘수로 보면 고유어 9,243(39.71%), 한자어 9,189(39.48%)로 비슷한 분포 비율을 보인다. 반면에 학년별로 보면 고유어는 1학년에서 2,183개로 무려 68.26%인데 반해 6학년에는 1,248개로 24.14%로 줄었다. 반면에 한자어는 1학년에서는 649개로 20.29%인데 반해 6학년에서는 2,648개로 51.23%로 급격하게 상승한다.

학년 전체로 보면 고유어와 한자어 비율은 각각 39.71%, 39.48%로 비슷하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혼종 비율도 16.81%나 된다. 그러나 1학년에서는 고유어가 68.26%, 한자어가 20.29%로 고유어가 47.97%나 높다. 반면에 한자어가 급격히 증가하는 5학년의 경우는 한자어가 54.65%, 고유어가 20.50%로 한자어가 34.15% 높다. 1-3학년은 고유어 비율이 높고 4-6학년은 한자어 비율이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자어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단순 빈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 빈도이다. 한자어가 우리말에서 70%라는 인식의 최대 문제는 사용 빈도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 번 쓰인 단어와 열 번 쓰인 단어를 같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말에서 70%가 아니라 특정 사전에서의 비율이다. 사전에서는 모든 어휘가 1:1로 대응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강범모·김홍규(2009)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용 빈도에 대한 자료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뭉치 언어학이 발달한 것도 이

런 사용 빈도의 중요성 때문이다.

어휘 사용 빈도 조사는 어휘수와 그에 따른 비율 조사와 또 다른 가치를 지닌다. 빈도는 곧 어휘의 사용률을 가리키므로 교과서에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어휘의 경우 낮은 어휘에 비해 학습이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빈도수를 가진 어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수록 교과서의 가독성도 함양되어 학습자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의 목표를 보다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바라볼 수 있다. 빈도가 높은 어휘는 곧 학습할 가치가 높은 어휘이므로 어휘에 대한 빈도 조사는 교육적 가치를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고 빈도수가 낮은 어휘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교육적 가치가 적다는 것은 아니다. 빈도수가 낮은 한자어의 경우 대부분 나이도 차원에서 독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표 11], [표 12]는 중복 빈도를 인정한 빈도수이다. 전체 사용 빈도수는 고유어가 487,580개로 64.54%이고, 한자어가 193,048개로 25.56%로 고유어 비율이 38.98% 높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고유어가 437,682개, 한자어가 99,186개로써 고유어가 58.78%나 높다. 2학년부터는 한자어 비율이 높아지면서 4학년부터 한자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 ‘한자어+고유어’비율도 고학년일수록 높다.

[표 12] 분류별 사용빈도수(학년별 중복 빈도 없음)⁶⁾

분류	1~6학년 전체	1학년어휘 전체	2학년만의 어휘	3학년만의 어휘	4학년만의 어휘	5학년만의 어휘	6학년만의 어휘
고유어	487,580	437,682	21,103	15,592	6,453	4,356	2,394
한자어	193,048	99,186	23,777	34,663	16,644	11,614	7,164
한+고	62,601	35,645	6,973	9,811	4,417	3,618	2,137
외래어	11,215	3,251	2,919	2,252	1,049	1,333	411
한+외	539	9	20	132	95	201	152
고+외	434	34	1	74	23	131	101
총합계	755,417	575,807	54,793	62,524	28,681	21,253	12,359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9.

※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년별 어휘수 분석

[표 13] 분류별 사용빈도수(학년별 중복 빈도 없음) 비율²⁶⁾

분류	1~6학년 전체	1학년어휘 전체	2학년만 의어휘	3학년만 의어휘	4학년만 의어휘	5학년만 의어휘	6학년만 의어휘
고유어	64.54%	76.01%	38.51%	24.94%	22.50%	20.50%	19.37%
한자어	25.56%	17.23%	43.39%	55.44%	58.03%	54.65%	57.97%
한+고	8.29%	6.19%	12.73%	15.69%	15.40%	17.02%	17.29%
외래어	1.48%	0.56%	5.33%	3.60%	3.66%	6.27%	3.33%
한+외	0.07%	0.00%	0.04%	0.21%	0.33%	0.95%	1.23%
고+외	0.06%	0.01%	0.00%	0.12%	0.08%	0.62%	0.82%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6), 7) 학년별 중복 빈도를 인정하여 각 분류별 사용빈도 집계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9.

※ [표 12]의 빈도수를 백분율로 표시

이상 종합해 보면 [표 14]과 같다. 중복 어휘와 빈도수를 고려할수록 고유어는 ‘39.7%<46.26%<64.54%’로 증가하였고 한자어는 ‘39.5%>29.71>25.58%’로 감소하였다.

[표 14] 초등 교과서(2009) 어원별 구성 어휘수와 비율 종합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한+고	한+외	고+외	종합
단순 구성	중복어휘 인정 안함	9,243 (39.7%)	9,189 (39.5%)	772 (3.3%)	3,912 (16.9%)	47 (0.2%)	113 (0.5%)
	중복어휘 인정	24,145 (46.26%)	15,509 (29.71%)	1,403 (2.69%)	7,981 (15.29%)	166 (0.32%)	72 (0.14%)
빈도수	중복어휘 인정	487,580 (64.54%)	193,048 (25.58%)	11,215 (1.48%)	62,601 (8.29%)	539 (0.07%)	434 (0.06%)
							(100%)
							(100%)
							(100%)

다음으로는 품사 분류에 따라 어원 정보를 분류해 보았다. 1차 자료(김한샘 : 2009)에서 분류한 품사 범주에 따라 분류한 학년별, 어원별 어휘는 [표 15], [표 16]과 같다.²⁷⁾

27) 김한샘(2009 : 10)에서 설정한 품사 정보 약호는 다음과 같다.

[표 15] 품사 범주별 어휘수(학년별 중복 어휘 없음)⁸⁾

범주	1~6학년 전체	1학년어휘 전체	2학년만의 어휘	3학년만의 어휘	4학년만의 어휘	5학년만의 어휘	6학년만의 어휘
명	15,141	1,631	1,094	2,460	2,528	3,759	3,669
동	4,296	737	404	711	630	927	887
부	1,516	332	202	241	232	276	233
형	1,331	210	125	235	215	297	249
관	242	47	15	33	33	48	66
의	222	57	26	41	34	35	29
감	198	38	30	46	26	39	19
대	76	32	9	7	6	14	8
보	36	26	1	0	3	4	2
접	32	12	3	9	2	4	2
총합계	23,276	3,198	1,926	3,803	3,771	5,409	5,169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9.

※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년별 품사 범주별 어휘수 분석

[표 16] 품사 범주별 어휘수(학년별 중복 어휘 없음) 비율⁹⁾

범주	1~6학년 전체	1학년어휘 전체	2학년만의 어휘	3학년만의 어휘	4학년만의 어휘	5학년만의 어휘	6학년만의 어휘
명	65.05%	51.00%	56.80%	64.69%	67.04%	69.50%	70.98%
동	18.46%	23.05%	20.98%	18.70%	16.71%	17.14%	17.16%
부	6.51%	10.38%	10.49%	6.34%	6.15%	5.10%	4.51%
형	5.72%	6.57%	6.49%	6.18%	5.70%	5.49%	4.82%
관	1.04%	1.47%	0.78%	0.87%	0.88%	0.89%	1.28%
의	0.95%	1.78%	1.35%	1.08%	0.90%	0.65%	0.56%
감	0.85%	1.19%	1.56%	1.21%	0.69%	0.72%	0.37%
수	0.80%	2.38%	0.88%	0.53%	1.64%	0.11%	0.10%
대	0.33%	1.00%	0.47%	0.18%	0.16%	0.26%	0.15%

약호	품사	약호	품사	약호	품사
명	일반 명사	의	의존 명사	대	대명사
수	수사	동	동사	형	형용사
보	보조 용언	감	감탄사	관	관형사
부	일반 부사	접	접속 부사		

범주	1~6학년 전체	1학년어휘 전체	2학년만의 어휘	3학년만의 어휘	4학년만의 어휘	5학년만의 어휘	6학년만의 어휘
보	0.15%	0.81%	0.05%	0.00%	0.08%	0.07%	0.04%
접	0.14%	0.38%	0.16%	0.24%	0.05%	0.07%	0.04%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8), 9) 학년별 중복 어휘 없이 품사 범주별 어휘수 집계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9.

※ [표 15]를 백분율로 표시

전체 학년으로 보았을 때 명사가 15,141개, 65.05%로 가장 많고 다음 동사가, 4,296개로 18.46%, 부사가 1,516개로 6.51%, 형용사가 1,331개로 5.72%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위는 학년별로 변화가 없다. 이는 명사와 동사가 양적 비중에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품사별 비중은 [표 16]과 같은 어원 분류를 보면 각 구성 어휘의 비중과 성격을 알 수 있다. 고유어의 경우는 명사, 동사, 부사 등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어 명사가 4,212개, 동사 2,316개, 부사 1,268개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자어는 명사는 8,855개로 한자어 전체 9,189개 가운데 96.36%인데 반해 동사, 형용사는 한자어 자체는 어미 활용이 없으므로 0%이다. 이럴 경우 동사, 형용사의 비중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자어+고유어’의 비율이 꽤 높고 여기서 한자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고’의 경우 동사는 1,962개로 명사 1,190개 보다도 비중이 높다. 형용사는 577개로 동사에 비해 훨씬 한자어 비중이 낮다.

품사별 어원별 교차 비율은 그동안 어휘 교육에서 소홀히 해온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곧 우리말 전체 어휘수를 대상으로 한자어가 몇 %인가, 고유어가 몇 %가식의 막연한 주장은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자어가 대부분 명사 중심인 것은 명사라는 품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구실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개념적 의미를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유어가 용언에서 높은 것은 우리말이 첨가어로서 매우 중요한 용언의 활용, 문장에서의 용언의 기능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²⁸⁾

따라서 한글이란 단일 문어 체계를 통해 한자어를 자연스런 우리말로 보고 품사별, 어휘별 교육이 섬세하게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단일 표기를 유지하면서 어원 교육 차원에서 한자 학습을 도입하는 것은 개념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자훈용파처럼 한자표기를 노출시키자는 것은 오히려 한자어를 배격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한자 교육을 위해 한자를 노출시키자는 것은 우리말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하는 국어교육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표 17] 품사류에 따른 어원별 교차 분류

	고유어	한자어	한+고	외래어	한+외	고+외	총합계	%
명	4,212	8,855	1,190	747	111	26	15,141	65.05%
동	2,316	0	1,962	1	1	16	4,296	18.46%
형	754	0	577	0	0	0	1,331	5.72%
부	1,268	83	165	0	0	0	1,516	6.51%
감	189	5	3	1	0	0	198	0.85%
수	149	33	4	0	0	0	186	0.80%
관	129	108	5	0	0	0	242	1.04%
대	65	8	3	0	0	0	76	0.33%
보	35	0	1	0	0	0	36	0.15%
의	96	96	1	23	1	5	222	0.95%
접	30	1	1	0	0	0	32	0.14%
총합계	9,243	9,189	3,912	772	113	47	23,276(100%)	
%	39.71%	39.48%	16.81%	3.32%	0.49%	0.20%		100%

자료 출처 : 김한샘, 초등교과서 어휘분석자료,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2009.

※ 어휘분석자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차분류 짐계

28) 김광해(2003), 조남호(2003), 이충우(2004) 등에서 설정한 등급별 교육용 어휘는 품사별로 좀 더 섬세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성환갑(1987)에서 분석한 고유어 대체에 의한 한자어 증가 이유와 결과 분석도 품사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병일(1998)에서의 우리말 살려쓰기도 좀 더 품사별로 섬세하게 살피면 더욱 유익한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윤학(1987)에서는 한자말을 토박이말로 맞옮기는 데에 따른 문제와 그 해결책을 균형있게 다뤄 한자어와 고유어 통합 교육과 고유어 강화 교육과 활용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

IV. 맷음말

2009년도 발행한 <초등학교 교과서>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단순 구성 어휘 23,276 어휘, 중복 총 어휘 52,196를 대상으로 어원을 중심으로 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어원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한+고(고+한), 한+외(외+한), 고+외(외+고) 등으로 분류하였다. 구성 비율에 따른 핵심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70%라는 인식은 특정 국어대사전의 올림 말의 단순 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이 우리말 전체의 비율로 소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율은 맥락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그런 비율을 배타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각각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언어 생활이나 어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고유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혼종어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어원별 어휘를 배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반증 자료가 된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율에 관한 주요 통계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초등 교과서(2009) 어원별 구성 어휘수와 비율 종합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한+고	한+외	고+외	종합
우리말 큰사전(1957)	74,612 (45.5%)	85,527 (52.1%)	3,986 (2.4%)		자료 없음		164,125 (100%)
국어대사전(1961)	62,912.5 (24.4%)	178,745.5 (69.3%)	16,196 (6.3%)		자료 없음		257,854 (100%)
표준국어대사전 (2000)	111,299 (25.3%)	251,478 (57.1%)	23,196 (5.3%)	36,461 (8.3%) *한+고+ 외:751 (0.2%)	15,548 (3.5%)	1,331 (0.3%)	440.262 (100%)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한+고	한+외	고+외	종합
단순 구성	중복어휘 인정 인함	9,243 (39.7%)	9,189 (39.5%)	772 (3.3%)	3,912 (16.9%)	47 (0.2%)	113 (0.5%)*	23,276 (100%)
	중복어휘 인정	24,145 (46.26%)	15,509 (29.71%)	1,403 (2.69%)	7,981 (15.29%)	166 (0.32%)	72 (0.14%)	52,196 (100%)
빈도수	중복어휘 인정	487,580 (64.54%)	193,048 (25.58%)	11,215 (1.48%)	62,601 (8.29%)	539 (0.07%)	434 (0.06%)	755,417 (100%)

주요 분포 비율에 따른 의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초등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복되지 않은 어휘류는 고유어로 39.7%, 한자어는 39.5%로 고유어 비율이 3.57% 높았다. 혼종어의 경우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이 16.8%의 비율로 혼종어가 우리말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한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2) 단순 구성 어휘수는 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교과서는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외래어>한자어+외래어 \geq 고유어+외래어’의 비율을 유지한다. 1학년에서 교과서의 68.26%를 차지했던 고유어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성 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한다. 반대로 한자어의 경우 구성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6학년의 경우 고유어보다 5.2% 높은 42.13%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3) 전체 사용 빈도수는 고유어가 487,580로 64.54%이고, 한자어가 193,048개로 25.56%로 고유어 비율이 38.98% 높다. 2학년때부터는 한자어 비율이 높아지면서 4학년부터 한자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 ‘한자어+고유어’비율도 고학년일수록 높다.

(4) 품사별 구성으로 보면, 전체 학년으로 보았을 때 명사가 65.05%로 가장 많고 다음 동사가 18.46%, 부사가 6.51%, 형용사가 5.72%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위는 학년별로 변화가 없다. 이는 명사와 동사가 양적 비중에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5) 어원 분류에 따른 품사 비율로는 고유어의 경우는 명사, 동사, 부사 등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어 명사가 4,212개, 동사 2,316개, 부사 1,268

개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자어는 명사는 8,855개로 전체 한자어 9,189개 가운데 96.36%인데 반해 동사, 형용사는 한자어 자체는 어미 활용이 없으므로 0%이다.

(6) 품사별 어원별 교차 비율은 그동안 어휘 교육에서 소홀히 해온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리말 전체 어휘수를 대상으로 한자어가 몇 %인가, 고유어가 몇 %가식의 막연한 주장은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자어가 대부분 명사 중심인 것은 명사라는 품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구실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의미를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유어가 용언이나 수식언에서 높은 것은 우리말이 첨가어로서 매우 중요한 용언의 활용, 문장에서의 용어의 기능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이상과 같은 의미 분석 결과를 통해 초등 교과서에서 단순 빈도로 보면 학년별 한자어 비중이 높아지지만 누적 빈도로 보면 오히려 고유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등급별 나이도에 따른 어휘 교육에서 디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어휘력과 실제 언어능력을 위해서는 고유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따라서 고유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나이도에 따른 어휘력을 위해서는 한자어 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고유어냐 한자어냐’라는 배타적 태도보다는 모두가 한글로 표기되어 소통되는 같은 범주의 한국어라는 인식 아래 균형 있는 어휘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본 논문은 2012. 6. 30. 투고되었으며, 2012. 7.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2. 8. 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범모 · 김홍규(2009). 『한국어 사용 빈도』. 한국문화사.
- 국립국어연구원(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 김슬옹(2004). “한글이름(인명)의 새로운 범주화와 사회적 의미”. 『사회언어학』 12권 2호, 29-50. 한국사회언어학회.
- 김슬옹(2010).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 김윤학(1987). “한자말을 토박이말로 맞옮기는 데에 따르는 문제와 그 해결책”. 『국어 생활』 8, 국어연구소.
- 김지형(2003).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기본한자의 선정–초·중급 한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한샘 편(2009).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나병일(1998). “순우리말 되살려 쓰기애 관한 연구–초등학교 5학년 읽기를 중심으로”. 군산대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2000).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용규(2011가). “한자 교육 기본법’ 제정을 반대한다”. 『한글 새소식』 467. 한글학회.
- 박용규(2011나). “국어 기본법을 훼손하지 말라”. 『한글 새소식』 469. 한글학회.
- 성환갑(1987). “고유어의 한자어화 과정”.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 윤윤진(2008).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자어 어휘교육을 강화할 필요성과 그 대안”. 『한국언어문화학』 5(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영희(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한자 빈도 연구”. 『어문연구』 35(4), 455-47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영희(2008).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응백(1980). “국어辭典 語彙의 類別 構成比로 본 漢字語의 重要度와 教育問題”. 『語文研究』 25 · 26호 합본, 一朝閣.
- 이충우(1994). 『한국어 교육용어휘 연구』. 국학자료원.
- 이희승(1946). 『한글맞춤법강의』. 동성사.
- 이희승 편(1961). 『국어 대사전』. 민중서관.
- 정호성(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1), 55-72. 국립국어연구원.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국립국어연구원 2003-1-4)”. 국립국어연구원.

- 한글학회 편(1957). 『큰사전』. 을유문화사.
- 한재영(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자어교육을 위한 기초적 연구—한자문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 허 웅(1970). “현대 국어의 동형어에 대한 연구—한자 폐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글』 145, 한글학회.
- 홍윤기 · 서희정(2010). “한국어교육에서 고유어의 위상과 등급화—고유어 용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2호. 국어교육학회.
- Ralph Fasold.(1990).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Blackwell.

<초록>

초등 교과서에 나타난 고유어와 한자어 비율에 따른
인식과 의미 분석

최운선

이 연구는 2009년도의 초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율 관계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율이 70%라는 통념의 실체를 밝혔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자어 비율과 대비하여 초등교과서의 고유어와 한자어 비율을 대비시켜 그 의미를 따져보았다.

구체적으로 학년별 비율, 교과별 비율, 품사별 비율 등 다양하게 분석하여 초등 교과서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 교과서에서 단순 빈도로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자어 비중이 높아지지만 누적 빈도내지 활용빈도로 보면 오히려 고유어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등급별 난이도에 따른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 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실제 언어능력에서는 고유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고유어냐 한자어냐라는 배타적 태도보다는 모두가 한글로 표기되어 소통되는 한국어라는 인식 아래 균형있는 어휘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고유어, 한자어, 사용빈도, 어휘 등급 기준, 한국어교육, 어휘 교육, 초등 교과서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Based on the Ratio of Pure-Korean Words and Sino-Korean Words Occurring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Choi, Woon-sun

This study surveys and analyzes the ratio relationship between pure-Korean words and Sino-Korean words in the vocabulary of all elementary school textbooks used in 2009. For this purpose, the truth about the commonly accepted idea that the ratio of Sino-Korean words in the Korean language was 70 percent was examined. The ratio of Sino-Korean words in a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was also compared to their ratio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and the significance of those ratios was considered.

Various ratios including those between grades, classes, and parts of speech were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pure-Korean words and Sino-Korean words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The analysis showed that, in simple terms of frequency, even as the importance of Sino-Korean words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increased in higher grades, the accumulative frequency of pure-Korean words actually increased more. It could be seen through this that, in vocabulary education based on graded levels of difficulty, the instruction of Sino-Korean words needs to be further strengthened. In contrast, the ability to properly use pure-Korean words was a very significant part of the students' actual linguistic ability. This showed that, instead of the exclusive attitude of emphasizing either pure-Korean or Sino-Korean words, a more balanced vocabulary education was ultimately needed in

which all words were written and communicated in the Korean alphabet and viewed as Korean.

【Key words】 pure-Korean words, Sino-Korean words, frequency in use of words, criteria for grading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vocabulary education, elementary school textbook